

# 넘어지고 다치고... 기습한파에 제주 '혼썰'

### 대설·강풍 관련 총 25건 소방출동 이어져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11명 병원 '이송' 19일 낮부터 최고기온 14℃까지 올라 포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25건의 '대설·강풍 관련 구급·안전조치 출동'이 발생, 소방인력 88명·장비 32대가 동원됐다.

주요 출동 내용을 보면 17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 구좌읍 감녕리의 한 도로 중앙분리대가 강풍에 의해 파손됐으며, 오후 7시28분쯤에는 이도 2동 소재 주택 대문이 바람에 기울어지는 일이 있었다.

18일 오전 11시38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서 신호등이 강풍에 의해 추락, 소방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도 속출했다. 17일 오후 6시10분 제주시 아라2동을 시작으로 총 11명이 '눈길 낙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눈길 교통사고'도 5건이나 발생해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 17일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최심신적설(특정 기간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은 어리목 21.5cm, 산천단 16cm, 성산 5.7cm, 강정 4.9cm, 유수암 4.5cm 등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18일 밤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겠다"며 "이로 인해 19일 아침까지 눈

이 오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9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최고기온이 14℃까지 오르겠고, 다음날인 20일에는 기온이 더 높아져 최고기온 18℃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눈날씨가 이어진 18일 오후 서귀포시 녹산로에서 제설차량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지검 사무국장에 박상욱... 검찰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18일 제주지검 사무국장 에 박 상 욱 (54·사진) 창원 지검 사무국장을 발령하는 등 검찰 공무원 인사를 단

행했다.

신임 박상욱 사무국장은 진주 대아고와 광운대 법학과를 거쳐 1993년

5급 공채로 검찰에 발을 들였다. 이후 국가공무원 인제개발원 파견, 울산지검 사무국장, 창원지검 사무국장을 거쳐 제주로 발령됐다.

다음은 제주지검 인사 명단. ▷제주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석경 ▷제주지검 총무과장 이원형 ▷제주지검 집행과장 오영준(이상 2월22일자).

송은범기자

## 강풍 들이닥친 제주 화재사고도 잇따라

강풍과 눈이 들이닥친 제주에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초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해 1개동 초가(8평)가 전소됐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2시2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소재 모델 하우스 용도로 사용되던 타운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47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오후 12시36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방풍림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골나무 2본과 삼나무 6본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과수원과 인접한 도로에서 일행 4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은 모닥불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 제주지법, 30대에 징역 30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밑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귀던 여자친구 A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해 밑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 “‘코로나블루’ 안심하고 진료·치료를” 무료 상담·고위험군 심층상담시엔 의료비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심리 방역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상담비를 지원하고 고위험군 심층상담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 20세 이상 도민들은 누구나 총 3회까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학교 등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진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되며, 검진비(본인부담금)는 보건소

(서귀포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비도 지원한다. 건강보험 청구 시 정신과 질환이 아닌 일반상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신건강전문의 상담연계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로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총 8곳으로 제주시에 6곳, 서귀포시에 2곳이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정신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8개의 의료기관에 상담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느낄 수

있는 우울감과 무력감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간단한 치료로 극복할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정신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 저하나 알코올·약물 중독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에 검진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정 의료기관 ▶제주시 ▷고신경정신과(서광로, 722-3185) ▷류정신건강의학과의원(건주로, 751-0901) ▷연강경정신과의원(서광로, 759-9641) ▷서울탐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제주시 1100로, 746-7282) ▷심연정신건강의학과의원(중양로, 753-9393) ▷한사랑정신과의원(서광로, 725-0222) ▶서귀포시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중정로, 762-0946)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일주동로, 763-0780).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기습 강추위에 전력수요 최고치 경신

지난 17일 오후 7시 기준 98만 5000kW 기록

기습 강추위로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제주지역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치가 40여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기준 제주지역 전력수요가 98만5000kW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겨울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던 지난달 7일 95만9000kW보다 2만6000kW 많은 것이다.

이날 최대전력수요량은 98만kW를 넘어섰지만 공급능력 148만3000kW, 예비전력 49만8000kW, 예비율 50.6%로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급증한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몰아친 기습 한파에 보일러 등 난방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강풍·풍랑주의보 속 서핑 해경, 레저활동자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여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여성 A(27)씨와 B(20)씨가 서핑을 즐

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서핑 강사로, 관광객 B씨의 서프보드 강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려던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강민성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보청기부문수상  
\*전장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HIT BRAND**  
히트브랜드대상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요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메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시점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메감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신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전, 흥진, 남진해(키라향), 제라론,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요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 라 조 생 ..... 1,2,3년생  
감 평 ..... 1,3,4년생  
방 자 묘 목 ..... 1년생  
성 아 흥 조 생 ..... 1년생  
성 전 온 주 ..... 1년생  
천 해 향 ..... 4,5년생  
황 금 향 .....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